

## 농사, 화평과 복의 길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편 37:11)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시편 37:22)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시편 37:29)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基業)으로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5)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누가복음 6:20)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졌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예바가 나리라 하시도다”(이사야 5:8-10)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勝)하더라”(민수기 12:3)

위에 인용한 여러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한 구절씩 간단하게 그 뜻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농토를 갖게 되고 그 농토를 통하여 화평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 말씀은 땅을 차지하여 농사로 그 업을 삼은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농토로부터 떠난 사람 즉, 땅과 인연이 끊어진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농토를 갖게 되고 거기서 대대로 영영히 살게될 것이라는 말이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으로써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즉, 농업을 인생의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회적 불의를 규탄하는 말씀으로 당시 지도층의 욕심과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땅과 집을 권력과 금력으로 독점하여 자기들만 잘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다. 땅은 내 삶의 신성한 터전이 될 때에 복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 욕심을 채워주는 부동산(물질, 돈)이 되면 화(禍)가 미친다는 말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모세의 성품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유함이었다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되는 것은 땅과 그를 토대로 하는 농업은 복된 것이라는 점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즉, 농사로 업을 삼은 사람은 ‘주의 복을 받은 자’, ‘온유한 자’, ‘의인’, ‘화평을 누리는 자’ 들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오늘날처럼 부동산으로, 재산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부동산으로 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화를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옛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농사지으며 살던 농민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은 알 수 있

고 어느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농민이 현실 속에서 풍요롭게 살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론이다. 농사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고래(古來)로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것은 땅과 그 소산물을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가난한 자를 의인과 동일시(同一視)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은 가난하다. 그러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농민의 것이다.

농업은 온유한 사람,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천직(天職)이요 그래서 성직(聖職)이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고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15)

생명은 따뜻함(溫)과 부드러움(柔)을 먹고 자라며 열매를 맺는다. 참된 생명은 넉넉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청빈과 화평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인 즉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온유한 농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선물인 것이다.